

내수부진 심각 ... '치킨집' 사장은 두렵다

〈자영업〉

광주 자영업자 출혈경쟁에 올들어 4000여명 줄어 은퇴층 담보대출로 자영업 진출 ... 가계부채 뇌관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6)씨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이다. 월매출도 줄어든데 임대료와 대출이자, 인건비, 재료비, 카드수수료 등을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자재비까지 따지면 투자금이 1억원이 넘는데 할값이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제안도 받았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손님의 발길이 끊기다 보니 가게 문을 닫고 싶다"고 말했다.

자영업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자영업 부진이 이어지면 '1100조원대 가계부채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광주 지역 자영업자 수는 15만 6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여명보다 4000여명이 줄었다. 2013년 3분기 16만4000명에 이르던 자영업자는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에만 1만명 가까이 줄었다.

이러한 자영업의 위기는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출혈경쟁을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가속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출혈경쟁을 하다보니 수익률이 낮아지고, 따라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기는 구조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층의 자영업 비중 확대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자영업 구조조정 속에도 충분한 노후 대비를 못한 은퇴층이 별다른 대안도 없이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50대 이상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들이 대출금을 자영업 사업 자금이나 생계비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43조5000억 원 중 주택구입 용도로 쓰인 대출규모는 22조1000억 원으로 전체의 50.9% 수준에 그쳤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50대 이상의 비중(지난해 3월 기준)은 50.7% 수준. 즉 은퇴층 자영업자가 주택담보

대출을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은퇴층의 소득증가율을 고려할 때 향후 이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는 가계대출의 일부 부실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은퇴층이 자영업에 진출할 경우 일부 업종의 낮은 수익성 탓에 부실화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1억원 이상 부채를 끼고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업할 경우 그만큼 가계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로 대출 조건이 완화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는 어렵지만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위험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효성, 파리에 스판덱스 '크레오라' 마케팅

'파리 모드 시티' 참가

효성이 파리에서 스판덱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크레오라'의 마케팅에 주력한다.

효성은 지난 4일부터 6일(현지시각)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모드 시티&인터필리에르 2015 (Paris Mode City & Interfilierie Paris)'에 참가해 글로벌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올해 32주년을 맞은 파리 모드 시티는 전 세계 40여개국 5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원부자재 업체 등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란제리·수영복 및 원부자재 전시회'다.

효성이 이번에 내놓은 대표 제품은 염소 성분에 의해 스판덱스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 수영복의 내구성을 향상시켜주는 '크레오라 하이클로(Creora Highclo)'다.

또 원단 생산 시 염색이 돼 컬러풀한 의류용 원단에 적합한 '크레오라 컬러 플러스(Creora Color+)', 낮은 온도에서 가공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며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크레오라 에코-소프트(Creora Eco-Soft)' 등도 대표 상품들이다.

나일론 소재인 아쿠아-X(Aqua-X)와 크레오라로 만들어진 제품도 관람객 및 바이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올 상반기 1순위 청약경쟁률 광주 57대1 ... 5년만에 최고

올해 상반기 전국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9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광주의 1순위 청약경쟁률도 50대1을 넘겼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반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9.4대 1로,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 열기로 청약경쟁률이 치솟은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는 6.7대 1이었다.

지방광역시 2013년 4.5대 1에서 지난해 이보다 3배 이상 오른 15.7대 1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3배 이상 오른 5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11년 0.81대 1에 불과했으나 2013년 1.91대 1, 지난해 12.8대 1을 기록한 뒤 올 상반기 57.0대 1로 폭등했다. 4월 분양된 '용봉동아텔리움 인비엔날레'의 경우 116.4대 1을 기록, 경쟁률 100대 1을 넘기도 했다. 광주 외에도 부산 89.3대 1, 대구 62.1대 1을 기록해 지방광역시의 무서운 상승세를 나타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신세계, U대회 외국어 통역서비스

광주신세계는 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서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 데스크는 자원봉사자(광주신세계 임·직원)와 통역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고속버스, 호남KTX개통 후 광주~서울 이용객 20% ↓

메르스 사태도 승객 감소 영향

지난 4월 호남선 KTX가 개통한 뒤 3개월간 광주발 서울행 고속버스 이용객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고속은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도 승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급고속에 따르면 광주~서울 고속버스 노선은 평일 90~95회, 주말은 125회의 버스가 투입되고 있다. 이 구간 고속버스 배차 대수는 KTX 개통 이전과 다른

없지만 이용객 수는 KTX 개통 시점을 전후로 크게 달라졌다. KTX 개통 이후인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광주 광천동버스터미널을 이용한 광주발 서울행 급고·중양고속 버스 이용객 수는 27만1285명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 이용객이 34만6244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KTX 개통이후 7만4959명(21.6%)이나 감소한 셈이다.

호남 KTX 개통 시점을 전후해 비교해도 고속버스 이용객 수 감소 현상은 뚜렷하다. KTX 개통 전 3개월간(올해 1~3월) 광주발 서울행 고속버스 이용객 수는 34만

1267명이었지만 개통 후 3개월(4~6월) 이용객 수는 6만9982명(20.5%)이나 줄었다. 기존 서울행 버스 승객 5명 중 1명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KTX로 바꾼 셈이다.

실제로 KTX 정차역인 광주송정역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현재 1만3000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5000여명과 비교해 3배 가량 급증했다. 급고고속측은 KTX 개통이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콜핑, 상하이 ISPO 아웃도어 전시회 참가

중시장 본격 공략

국내 정통 아웃도어 기업인 콜핑이 혁신적인 기술과 뛰어난 디자인과 제품력을 앞세워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상하이 ISPO(국제스포츠용품박람회·사진) 아웃도어 전시회에 참가해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콜핑은 아시아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박람회인 '2015 상하이 ISPO'에서 독일 심파텍사와 함께 개발한 듀얼 히트 시스템(Dual Heat System) 제품 및 2015 가을·겨울 제품과 2016 봄·여름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주)콜핑 및 (주)비탈화 회장이자 한국 아웃도어 산업협회회장을 맡고 있는 박만영 회장은 "올해 콜핑은 중국, 아시아 시장을 넘어 유럽 진출까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디자인과 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웃도어 새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본고장인 유럽에 맞춰 현지화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해 글로벌 브랜드

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콜핑은 중국에서 열린 베이징 ISPO 및 상하이 ISPO에 이어 오는 15일~18일에는 유럽 진출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아웃도어 본고장인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 전시회에 참가한다. 또 20일에는 독일 심파텍사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다.

1970년부터 독일에서 시작된 ISPO는 세계 최대 스포츠 박람회로 50여개국 25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아웃도어 전시회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65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0 14 19 39 40 43	2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694,762,792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8,887,389	52
3	5개 숫자 일치 1,627,494	1,562
4	4개 숫자 일치 50,000	78,396
5	3개 숫자 일치 5,000	1,325,593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YONAMJA

STEAK / PASTA / PIZZA / BEER

STEAK ₩12,500~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F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대년재직)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초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선,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간직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라이프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